한국심리학회지 :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Clinical Psychology in Korea: Research and Practice
2022, Vol. 8, No. 4, 559-588

OPEN ACCESS

대학생의 아동기 정서학대와 정서방임의 경험과 우울 증상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차별적인 매개효과*

전 선 영†
아주심리상담센터 상담원

김 은 정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심리적 학대의 하위유형인 정서학대와 정서방임은 질적으로 다른 양육자와 아동의 해로운 상호작용방식으로, 이후 정서발달과 우울 증상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안되고 있다. 가해 행위로 이루어진 정서학대는 우울한 기분과 관련되어 있는 반면, 부재 행위로 이루어진 정서방임은 우울한 기분과 무쾌감성 우울 증상과 관련되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아동기 정서학대와 정서방임의 경험과 우울 증상(우울한 기분, 무쾌감성 우울 증상)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정서조절능력의 차별적인 영향을 검증하였다. 323명의 대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유형, 아동기 외상경험, 우울한 기분, 무쾌감성 우울 증상, 정서인식명확성, 부정정서강도, 적응 및 부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을 측정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 검증 결과, 정서학대와 우울한 기분 간의 관계를 부정정서강도와 부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이 연속 매개하는 동시에 부정정서강도와 부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이 각각 단순 매개하였다. 반면, 정서방임과 무쾌감성 우울 증상 간의 관계를 낮은 정서인식명확성과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의 부족이 각각 단순 매개하였다. 정서방임과 우울한 기분 간의 관계를 낮은 정서인식명확성이 단순 매개하였다. 이는 아동기 정서학대와 정서방임이 다른 기제를 통해 대학생의 우울한 기분과 무쾌감성 우울 증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정서학대, 정서방임, 정서조절능력, 우울한 기분, 무쾌감성 우울 증상

---

* 본 논문은 전선영(2021)의 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을 일부 수정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전선영 / 아주심리상담센터 상담원 / (1650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99(원천동) 아주대학교 캠퍼스플라자 5층 아주심리상담센터 / Fax : 031-219-1729 / E-mail : newsuun@hanmail.net

Copyright ©2022, Clinical Psychology in Korea: Research and Practic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심리적 학대(psychological maltreatment or emotional maltreatment)는 양육자가 지속적으로, 극단적으로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와 감정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모욕하고, 위협하고, 무관심하게 대하는 비신체적인 해로운 상호작용 방식을 말한다(APSAC, 2017; Glaser, 2011). 심리적 학대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크게 정서학대와 정서방임으로 분류된다(Brassard, Hart, & Hardy, 1993; Clarke, 2015; Egeland, 2009). 정서학대는 아동에 대한 양육자의 언어적 폭력이나 모욕, 비하, 협박, 거부 행위 등으로 이루어진 가해 행위(acts of commission)를 말한다. 정서방임은 아동의 욕구나 바램에 대한 양육자의 정서적 무반응, 정서적 부재와 거리두기 및 회피 등으로 이루어진 부재 행위(acts of omission)를 말한다. 이처럼 정서학대와 정서방임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경험(가해 행위 대 부재 행위)으로, 이후 발달 및 적응에 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제안된다. 그러나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정서학대와 정서방임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개념으로 측정하거나 둘 중 하나의 유형만을 선택하여 연구하였다(김은석, 2021; 석애란, 김영근, 2018; Hodgdon et al., 2018; Spinazzola et al., 2014). 이는 정신건강과 적응에 미치는 정서학대와 정서방임의 고유한 속성과 영향을 민감하게 파악하는 데에 제한점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정서학대와 정서방임의 고유한 속성과 영향을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서학대와 정서방임으로 구분하여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심리적 학대는 다른 아동학대 유형들과 달리, 양육자와의 일상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만성적이고 만연한 속성으로 인하여 이후 적응과 정서·심리적 어려움에 장기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Hodgdon et al., 2018; Rokach & Chan, 2021; Spinazzola et al., 2014). 특히, 다수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심리적 학대(정서학대, 정서방임, 정서학대+정서방임)가 우울증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험 요인일 가능성이 일관되게 제기되고 있다(김은석, 2021; Cecil, Viding, Fearon, Glaser, & McCrory, 2017; de Oliveira et al., 2018; Humphreys et al., 2020; Li et al., 2021; Spinhoven et al., 2010). 하지만 심리적 학대의 하위유형들이 우울 증상에 미치는 고유한 영향을 비교·조사한 연구결과는 혼재되어 있다. 일부 연구에서 정서학대와 정서방임 둘 다 동일하게 우울 증상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Humphreys et al., 2020; Ross, Kaminski, & Herrington, 2019).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정서학대만이 우울 증상과 관련되어 있는 반면(Cecil et al., 2017; de Oliveira et al., 2018; Hamilton et al., 2013),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정서방임만이 기분부전, 주요 우울 장애(Spinhoven et al., 2010) 및 우울증(Kuo, Goldin, Werner, Richard, & Gross, 2011)과 관련되어 있었다.

정서학대와 정서방임과 우울증 간의 관계에서 비일관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는 선행연구들이 우울 증상의 이질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채 단일 개념으로 측정한 것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최근 연구자들은 개별 우울 증상들은 독립적인 인과관계를 가지는 독립된 존재라고 제안한다(Fried, Nesse, Zivin, Guille, & Sen, 2014; Kendler, Aggen, & Neale, 2013; Sharpley & Bitsika, 2013). 특히, 주요 우울 장애의 핵심 증상인 슬픔과 광범위한 부정적인 정서로 이루어진 우울한 기분(depressed mood)과 낮은 긍정 정서와 흥미로

특징지어진 무쾌감성 우울 증상(anhedonic depression)은 다른 증상과 경과를 보이는 독립적인 증상으로 다른 병인론에 의해 초래됐을 가능성이 보고되고 있다(Cramer, Waldorp, van der Maas, & Borsboom, 2010; Hasler & Northoff, 2011). 우울한 기분(예: 전전두엽 피질, 해마, 편도체)과 무쾌감성 우울 증상(예: 시상과 경막)은 다른 신경생물학적 기제와 관련되어 있으며(Sharpley & Bitsika, 2013), 청소년기 동안 독립적으로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onway, Zinbarg, Mineka, & Craske, 2017). 또한 우울한 기분과 무쾌감성 우울 증상은 우세한 우울 증상이나 동반 여부에 따라 표현되는 임상적인 양상이나 치료적 반응이 다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우울하고 부정적인 기분은 높은 수준의 부정 정서성과 신경증 경향성이 필수적이었으나, 무쾌감성 우울 증상은 그렇지 않았다(Watson, Gamez, & Simms, 2005). 동기적 맥락에서, 접근 체계의 결핍은 전형적으로 무쾌감성 우울 증상과 관련되어 있는 반면, 회피 체계의 민감성은 우울하고 부정적인 기분 상태와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Trew, 2011). 치료적 반응에 있어서도 기존에 잘 알려진 우울장애에 대한 일반적인 치료(예, 항우울제, 인지행동치료)는 우울한 기분의 개선에는 효과적이었으나, 무쾌감성 우울 증상에 대한 예후는 좋지 않았다(민혜원, 2016; Sharpley & Bitsika, 2013).

선행연구가 제한적이기는 하나, 정서학대와 정서방임이 우울한 기분과 무쾌감성 우울 증상과 서로 다른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van Veen 등(2013)이 우울과 불안장애를 가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서학대와 정서방임 둘 다 우울하고 부정적인 기분과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정서방임이 유일하게 무쾌감성 우울 증상과 관련되어 있었다. 이와 유사하게, Cohen, McNeil, Shorey 및 Temple(2019)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장기 연구에서도 정서학대와 정서방임 둘 다 우울한 기분의 수준을 예측하였다. 정서방임만이 무쾌감성 우울 증상의 수준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무쾌감성 우울 증상이 더 증가하는 발달경로(trajectories)를 예측하였다.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전선영, 2021)에서는 정서학대가 우울한 기분을, 정서방임이 무쾌감성 우울 증상을 유일하게 예측하였다. 한편 국외의 선행연구들(Cohen et al., 2019; van Veen et al., 2013)과 달리, 전선영(2021)의 연구에서는 정서방임이 근소한 차이로 우울한 기분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는데(P = .059), 이는 연구대상자(연령, 임상집단, 인종/민족 등)나 연구방법(전향적 연구)의 차이와 관련되어 있을 수 있겠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정서학대와 정서방임이 우울증에 미치는 고유한 영향을 민감하게 감지하기 위해서는 우울한 기분과 무쾌감성 우울 증상으로 세분화하여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아직까지 정서학대와 정서방임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우울한 기분과 무쾌감성 우울 증상에 이르게 되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Nolen-Hoeksema와 Watkins(2011)의 정신병리의 초진단적 모델(Transdiagnostic Models of Psychopathology)은 환경적 맥락(예: 학대나 외상사건)이나 선천적인 생물학적 이상과 같은 원근 위험 요인(distal risk factors)이 근접 위험 요인(proximal risk factors)을 매개로 정신병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가정한다. 이들은 근접 위험 요인의 매개 변인으로 크게 정서처리(정서적 자극에 반응하고 정보처리하고 자동적으로 뿐만

아니라 자발적이고 의식적으로 정서를 조절하는 과정)와 실행기능(목표를 위해 의식적으로 정서와 생각 및 행동을 통제하는 인지적 과정)을 제안한다. McLaughlin(2016)은 초진단적 모델에 근거해서, 아동기 부정적 경험의 유형(예: 위협 대 박탈)과 정신병리 간의 관계에 기저 하는 정서처리와 실행기능의 매개 역할을 개관하였다. 그 결과, 학대(abuse)와 같은 외상 노출은 환경의 잠정적인 위협에 대한 주의 편파와 같은 안정적인 정보처리패턴과 부정적 정서 단서에 대한 더 강한 신경학적 및 주관적 정서 반응과 관련되어 있었다. 이에 그는 위협적 환경에 노출된 아이들은 강한 정서반응을 조절하기 어려우면서 부적응적 반응 패턴을 발달시키게 된다고 제안한다. 반면, 방임과 같은 박탈된 환경은 정서인식의 어려움과 욕구 및 보상 반응의 결함과 관련되어 있었다. 또한 인지적 유연성, 계획능력, 억제통제와 같은 실행기능의 부족과 관련되어 있었다. 이에 그는 박탈된 환경은 아동이 구체적이고 추상적인 규칙들을 배울 수 있는 학습의 기회를 제한하기 때문에 아동이 인지적으로, 행동적으로 자기조절능력을 발달시키는 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제안한다. 종합하면, 초기 위협적 환경(예: 학대)과 박탈된 환경(예: 방임)은 정서 학습 기회의 존재(예: 공포 학습)와 부재(예: 보상 학습)라는 다른 정서 학습 경로를 통해 정서적 자극에 대한 정서적 반응과 정보처리패턴과 더불어 자발적이고 목적의식적 정서조절전략의 발달에도 다르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정서학대와 정서방임이 정서조절능력과 우울증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서학대의 경우, 정서학대를 경험하는 아동은 정서적으로 방임된 아동보다 분노와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 압도적인 불안이나 강렬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되면 뇌의 시상-편도체 회로 및 자율신경계가 교란을 일으키게 되고, 이는 정서 활성화의 역치를 변형시켜 사건 관련 단서뿐만 아니라 중립적 자극에 대해서도 스트레스 반응이 활성화되어 정서적 반응을 조절하는데 곤란을 겪게 된다(Ehring & Quack, 2010). 대인간 폭력 등 학대에 노출된 사람은 일관되게 다양한 부정적 정서 단서에 대해 편도체와 해마의 과활성화와 더불어 위협을 지각하였을 때에 나타나는 자율신경계반응과 동일한 패턴을 보였다(McLaughlin, 2016; McLaughlin, Sheridan, & Lambert, 2014). 또한 어릴 적 애착외상의 경험이 빈번할수록 부정 정서를 더 강하게 경험하였으며(송승아, 2019), 부정정서강도가 정서학대와 자살시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다(Gordon et al., 2016). 구훈정, 조현주, 이종선(2014)이 정서적 학대를 부모의 과보호(통제, 간섭, 과보호) 차원과 무시/방임 차원으로 구분하였을 때, 부모의 과보호 차원은 부정정서강도와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부모의 무시/방임 차원은 부정 정서반응성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아동기 정서학대가 생리적 각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정서강도/반응의 역치 수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정서학대를 겪은 아동은 부정 정서를 더 강하게 경험하게 되면서, 부정 정서를 회피하고 학대적 환경으로부터 적응하기 위한 반복적 시도로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들을 발달시키게 된다(Mills, Newman, Cossar, & Murray, 2015; Morris, Silk, Steinberg, Myers, & Robinson, 2007; Mulholland, 2010). 또한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부모는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뿐만 아니라 암묵적으로 부정적 인지와 무가치감이나 부적절감을 제공하기 때문에 아동은 파국화, 자기비난, 반추 등의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을 발달시키게 되면서 우울증에 취약해지게 된다(Crow, Cross, Powers, & Bradley, 2014; Gibb & Abela, 2008; Huh, Kim, Lee, & Chae, 2017; Rose & Abramson, 1992; Spasojević & Alloy, 2002).

반면, 정서방임의 경우, 정서적으로 방임된 아동은 양육자와의 정서 및 사회적 상호작용의 부재로 인해 양육자가 어떠한 정서조절 기술도 아동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되면서 아동의 정상적인 정서 기술들의 발달을 저해하게 된다(Pollak, Cicchetti, Hornung, & Reed, 2000). 즉, 정서적으로 방임된 사람들은 양육자와 정서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모델링할 기회가 제한되며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확인하고 변별하고 명명하거나 적응적인 정서조절전략을 배우고 발달시킬 기회를 충분히 가지지 못하게 된다(김은정, 김진숙, 2020; Aust, Härtwig, Heuser, & Bajbouj, 2013; Jessar, Hamilton, Flynn, Abramson, & Alloy, 2017; Mills et al., 2015; Mulholland, 2010). 또한 사건의 타당한 해석의 근거로써 자신의 정서 반응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서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게 되거나 둔감해지게 된다(Linehan & Kehrer, 1993). 낮은 정서인식명확성이 정서방임과 우울 증상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으나, 정서학대의 경우에는 정서인식명확성의 매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Jessar et al., 2017). 정서방임만이 선행사건 초점 정서조절곤란(정서주의/자각 부족과 정서 명료성 부족)을 매개로 대인관계 문제를 예측하였으나, 정서학대의 경우에는 선행사건 초점 정서조절곤란의 매개 효과가 없었다(김은정, 김진숙, 2020). 이는 아동기 정서방임이 정서인식능력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정서적으로 방임된 사람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명료하게 인식하지 못하면서 이후 우울이나 대인관계문제 등의 심리적 부적응을 겪게 될 가능성을 시사된다. 또한 정서방임은 정서수용, 정서경험, 목표 및 계획탐색 등의 정서조절전략의 부족과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었으며(Aust et al., 2013; Mills et al., 2015), 정서방임과 우울/불안 간의 관계를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의 부족이 매개하였다(Huh et al., 2017). 한편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이 정서인식명확성과 우울증이나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다(김보균, 이민규, 2019; 김예은, 송원영, 2017; Garnefski & Kraaij, 2006). 반면, 부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은 정서인식명확성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매개하지 않았다(김예은, 송원영, 2017; Garnefski & Kraaij, 2006). 이처럼 정서적으로 방임된 사람은 낮은 정서인식명확성으로 인하여 긍정적 감정이나 욕구를 느낄 기회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부정적 감정을 잘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정적 감정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이 부재하면서 긍정적 강화나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줄고 부정적인 감정은 지속되며 우울한 기분과 무쾌감성 우울 증상에 취약해지게 될 수 있겠다(Aoki et al., 2019; Berenbaum, Bredemeire, Thompson, & Boden, 2012; Saarni, 2000).

위에 제시된 초진단적 모델(Nolen-Hoeksema & Watkins, 2011)과 선행연구들에 근거했을 때, 양육자와의 다른 상호작용 경험에 노출된 아동기 정서학대(위협)와 정서방임(박탈)은 다른 학습 경로(예: 공포 학습 대 보상 학습)를 통해 정서조절능력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게 되

고(McLaughlin, 2016), 이는 이후 우울 증상에도 다르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기한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이질적인 증상으로 이루어진 우울증을 하위유형으로 구분하지 않고 우울증이라는 한 개념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Brown, Fite, Stone, & Bortolato, 2016; Crow et al., 2014; Gibb & Abela, 2008; Huh et al., 2017; Jessar et al., 2017; O'Mahen, Karl, Moberly, & Fedock, 2015), 정서학대와 우울한 기분 간의 관계와 정서방임과 우울한 기분과 무쾌감성 우울 증상 간의 관계를 실제로 매개하는 정서조절능력을 민감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둘째, 다차원적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정서조절능력을 정서조절곤란이라는 한 개념으로 통합해서 연구하거나 또는 정서조절능력들 중 1~2개의 특정 정서조절능력(예: 반추나 정서인식명확성 등)을 선택하여 조사하고 있다(Brown et al., 2016; Crow et al., 2014; Gibb & Abela, 2008; Huh et al., 2017; Jessar et al., 2017; O'Mahen et al., 2015). 이 경우에 정서학대와 정서방임이 정서조절의 각 단계(정서를 경험하고 인식하는 단계와 경험한 정서를 조절하고 대처하는 전략단계)에서 어떠한 정서조절능력의 어려움과 관련되어 있는지, 각 단계에서의 정서조절능력들이 어떠한 유기적 관계를 통해 우울한 기분과 무쾌감성 우울 증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파악할 수 없다. 특정 정서적 어려움에 이르게 하는 정서조절능력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것은 위험을 평가하고 이에 맞는 치료적 계획과 개입을 성립하는 데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정서학대와 정서방임이 우울한 기분과 무쾌감성 우울 증상에 이르는 과정에서 각 단계의 정서조절능력이 어떠한 매개 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성인 진입기는 우울증의 유병율이 증가하고(APA, 2013), 우울한 기분과 무쾌감증의 관련성이 강해지는 시기로 우울증의 발달에 중요한 발달 기간이다(Bennki, Nederhof, Ormel, & Oldehinke,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인 진입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우울 증상에 미치는 정서학대와 정서방임의 고유한 영향과 이에 기저 하는 정서조절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정서학대의 경우, 선행연구에서 정서학대 등 학대 경험이 부정정서강도(송승아, 2019; Gordon et al., 2016; Van Marle, Hermans, Qin, & Fernandez, 2009)와 관련되어 있었다. 또한 부적응적 정서조절이 정서학대와 우울증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다(Crow et al., 2014; Huh et al., 2017; O'Mahen et al., 2015). 한편, 부정정서강도 자체가 직접 우울에 영향을 미치기보다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지영, 김은하, 2018). 이처럼 정서학대는 부정정서강도와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정서학대가 우울한 기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전선영, 2021; Cohen et al., 2019; van Veen et al., 2013). 그러나 선행연구의 결과는 우울증을 단일 개념으로 평가하여 얻은 결과여서, 정서학대와 우울한 기분 간의 관계에서도 선행연구와 같이 부정정서강도와 부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의 매개 효과가 유의미하게 도출될지 의문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모형 내에 부정정서강도와 부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의 연속 매개와 부정정서강도와 부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의 단순 매개를 탐색하는 경로를 모두 설정하여 개별 간접경로의 유의도를 모두 탐색한 후에 매개효과

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즉, 아동기 정서학대와 우울한 기분 간의 관계에서 부정정서강도와 부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이 연속 매개하는지, 단순 매개하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정서방임의 경우, 선행연구에서 정서방임이 정서인식명확성이나 기분확인곤란 등과 같은 정서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Aust et al., 2013; Brown, Fite, Stone, Richey, & Bortolato, 2017; Frewen et al., 2008; Young & Widom, 2014) 정서인식의 어려움을 매개로 우울증에 영향을 미쳤다(Brown et al., 2016; Jessar et al., 2017). 또한 정서방임은 적응적 정서조절전략과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었으며(Aust et al., 2013; Mills et al., 2015),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이 정서방임과 우울증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다(Huh et al., 2017). 정서학대와 마찬가지로 정서방임의 선행연구들도 우울증을 단일 개념으로 평가해서 얻은 결과이다. 정서방임이 무쾌감성 우울증상과 우울한 기분에 고유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Cohen et al., 2019; van Veen et al., 2013), 그 기저에 정서인식명확성이나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이 매개할 것이라는 것은 이론적 가설로 제안되고 있을 뿐이다. 한편 선행연구들을 통해 정서인식명확성이 적응적인 정서조절능력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고려되고 있으며(석애란, 김영근, 2018; Barrett, Gross, Christensen, & Benvenuto, 2001; Mennin, Holaway, Fresco, Moore, & Heimberg, 2007),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이 정서인식명확성과 우울증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다(김보균, 이민규, 2019; 김예은, 송원영, 2017). 단,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과 관련되어 있는 목표-지향적 행동(Aoki et al., 2019)이나 긍정적 자기-판단 편파(Dunn, Stefanovitch, Buchan, Lawrence, & Dalgleish, 2009), 통제 착각(Bogdan, Pringle, Goetz, & Pizzagalli, 2012)과 같은 긍정적인 정보처리 편파는 무쾌감성 우울 증상과는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었으나, 우울한 기분과는 그렇지 않았다(Trew,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서방임과 무쾌감성 우울 증상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정서조절능력을 탐색하기 위하여, 모형 내에 정서인식명확성과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의 연속 매개와 단순 매개를 탐색하는 경로를 모두 설정하였다. 정서방임과 우울한 기분 간의 관계는 정서인식명확성이 단순 매개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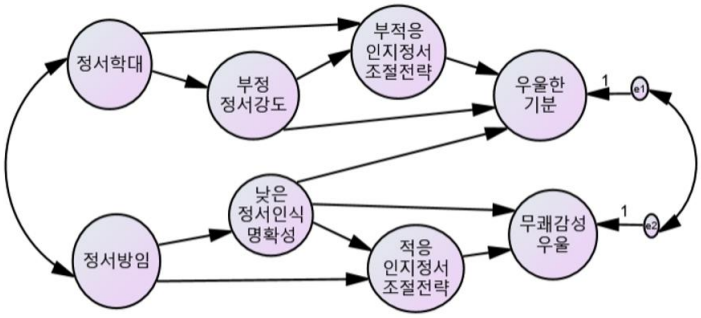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가설:

1) 정서학대와 우울한 기분 간의 관계를 부정정서강도와 부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이 연속 매개할 것이다.

2) 정서학대와 우울한 기분 간의 관계를 부정정서강도가 단순 매개할 것이다.

3) 정서학대와 우울한 기분 간의 관계를 부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이 단순 매개할 것이다.

4) 정서방임과 무쾌감성 우울 증상 간의 관계를 낮은 정서인식명확성과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의 부족이 연속 매개할 것이다.

5) 정서방임과 무쾌감성 우울 증상 간의 관계를 낮은 정서인식명확성이 단순 매개할 것이다.

6) 정서방임과 무쾌감성 우울 증상 간의 관계를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의 부족이 단순 매개할 것이다.

7) 정서방임과 우울한 기분 간의 관계를 낮은 정서인식명확성이 단순 매개할 것이다.

연구방법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수도권 및 천안, 광주, 대구, 그 외 지역에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성인 진입기(만 19~29세)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이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 및 비밀보장원칙 등에 대한 설명과 동의서 및 설문지의 작성은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진행되었다. 연구자가 직접 각 대학의 심리학 교수들에게 본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에 연구에 대한 안내문과 설문지와 연결되는 링크를 보냈다. 담당교수가 심리학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본 연구와 설문지에 대하여 설명한 후, 연구 참여를 원하는 사람만 링크에 직접 연결하여 연구 안내문을 읽고 동의한 후에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2021년 4월 약 한 달 동안 이루어졌으며, 총 330명이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성인 진입기에 포함되지 않거나 잘못 기입한 7명을 제외한 총 323명(여 = 242명, 74.9%, 남 = 81명, 25.1%)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평균 연령은 20.8세(SD = 1.8)였다. 설문지를 완성한 사람들에게는 보상으로 3천원 상당의 모바일 쿠폰을 지급하였다. 본 연구는 아주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수행되었다(승인번호: 202104-HB-001).

측정도구

한국판 아동기 외상 질문지((Korean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K-CTQ)

아동기 학대 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유재학, 박지선, 유승호, 하지현(2009)이 타당화한 한국판 아동기 외상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CTQ)는 Bernstein과 Fink (1998)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총 28문항으로 5가지 하위유형-정서학대, 정서방임, 신체학대, 신체방임, 성학대와 타당도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이 질문지는 만 18세 이전의 아동학대 경험에 대한 회고적 선별 검사로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아니다 ~ 5: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5가지 아동학대 유형을 측정하는 25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유재학 등(2009)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79였으며, 정서학대 .80, 정서

방임 .89, 신체학대 .82, 성학대 .79, 신체방임 .51이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91, 각 아동학대 유형의 내적 합치도는 정서학대 .82, 정서방임 .91, 신체학대 .83, 신체방임 .56, 성학대 .92였다.

외상 경험 질문지(Trauma Antecedents Questionnaire: TAQ)

아동기 외상 경험을 평정하기 위해 van der KolK(1996)가 개발한 외상 경험 질문지를 고나래(2008)가 번안 및 수정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유능감', '분리경험', '아동학대', '가정폭력 목격', '다른 외상 경험(자연재해, 교통사고 등)' 등의 10가지 영역에 걸친 외상적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어린 시절에 이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를 4점 리커트 척도(1: 전혀 아니다 ~ 4: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고나래(2008)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70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적응적 기능과 보호적 요소를 측정하는 '유능감' 등과 같이 아동기 외상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거나 아동학대와 중복될 수 있는 문항들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8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83이었다.

통합적 한국판 역학연구센터 우울 척도(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우울한 기분을 측정하기 위하여 전겸구, 최상진, 양병창(2001)이 타당화한 통합적 한국판 CES-D를 사용하였다. CES-D는 Rodloff(1977)가 일반인들이 경험하는 우울을 보다 용이하게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로, 우울 정서에 초점을 맞춰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20문항으로 구성된 자기 보고형 질문지로 4점 리커트 척도(1: 전혀 아니다 ~ 4: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전겸구 등(2001)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91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연구에서 가장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CES-D의 요인 구조(배성우, 신원식, 2005; Shafer, 2006)에 근거해서, 무쾌감성 우울 증상과 중복되는 4문항을 제외한 16문항으로 우울한 기분(Depressed Mood)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우울한 기분의 내적 합치도는 .93이었다.

한국판 기분 및 불안 증상 질문지(Mood and Anxiety Symptom Questionnaire: MASQ)

무쾌감성 우울 증상을 측정하기 위하여 Watson과 Clark(1991)가 우울과 불안의 공통 요인과 특정 요인을 구분하기 위해 개발한 기분 및 불안 증상 질문지에서 무쾌감성 우울 증상 하위 척도에 해당하는 22문항을 사용하였다. 원 질문지는 총 90문항으로 일반고통, 불안각성, 무쾌감성 우울 증상의 3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질문지는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아니다 ~ 5: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이영호와 이기련(1998)과 이현과 김근향(2014)이 번안 및 타당화하였다. 이현과 김근향(2014)의 연구에서 무쾌감성 우울 증상 하위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94였다. 본 연구에서 무쾌감성 우울 증상의 내적 합치도는 .95이었다.

특질 상위기분 척도(Trait Meta-Mood Scale: TMMS)

정서인식명확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Salovey, Mayer, Goldman, Turvey와 Palfai(1995)가 개발하고 이수정과 이훈구(1997)가 번안하여 타당화

한 특질 상위기분 척도(TMM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정서에 대한 주의(5문항), 정서개선에 대한 기대(5문항), 정서인식명확성(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아니다 ~ 5: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인식명확성을 측정하는 11문항을 사용하였다. 이수정과 이훈구(1997)의 타당화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0이었다. 본 연구에서 정서인식명확성의 내적 합치도는 .83이었다.

정서강도 척도(Affect Intensity Measures: AIM)

부정정서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Larsen과 Diener(1987)가 개발하고 한정원(1997)이 번안하고 옥수정(2001)이 수정한 정서강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의 정서 경험에 있어서의 크기 혹은 강도의 차이를 측정하는 총 40문항으로, 6점 리커트 척도(1: 전혀 아니다 ~ 6: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Bryant, Yarnold 및 Grimm(1996)이 정서강도 척도의 측정 모델을 검증한 결과, 27문항으로 구성된 '긍정정서반응성', '부정정서강도' 및 '부정정서반응성'의 3요인 모델이 가장 적합하였다. 긍정정서강도와 부정정서강도/반응성은 서로 구분되는 이질적인 차원으로, 정서강도 중 부정정서강도/반응성이 우울, 불안, 신체화 등 모든 부적응 지표들과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과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었다(이지영, 2016; 이지영, 김은하,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ryant 등(1996)이 제안한 3 요인구조를 바탕으로 부정정서강도/반응성을 측정하는 12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부정정서강도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부정정서강도의 내적 합치도는 .78이었다.

인지적 정서조절 질문지(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CERQ)

인지정서조절전략을 측정하기 위해 Garnefski, Kraaij 및 Spinhoven(2001)이 개발하고 김소희(2004)가 번안한 인지적 정서조절 질문지(CERQ)를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총 36문항으로 긍정적 초점변경, 긍정적 재평가, 조망확대, 계획 다시 생각하기, 수용, 반추, 자기비난, 타인비난, 파국화 등 총 9가지 전략으로 이루어져 있다. 5점 리커드 척도(1: 전혀 아니다 ~ 5: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안현의, 이나빈 및 주혜선(2013)이 인지적 정서조절 질문지(CERQ)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수용' 전략에 포함된 13번 문항('그 일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이 문항 간 상관, 문항-요인 간 상관이 매우 적었다. 이에 연구자들은 13번 문항을 제거한 총 35문항으로 CERQ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수용' 전략의 일부 문항(예: 13문항)이 몇몇 동아시아권 문화에서는 체념에 가까운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안현의 등, 2013; Wei,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13번 문항을 제외한 35문항을 사용하였다.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에는 긍정적 초점변경, 긍정적 재평가, 조망확대, 계획 다시 생각하기, 수용이 포함되었다. 부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에는 반추, 자기비난, 타인비난, 파국화가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83,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은 .88, 부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은 .83이었다.

분석방법

자료 분석에 SPSS 22 버전과 AMOS 26 버전

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SPSS 22버전을 이용하여 연구 변인들에 대한 기술 통계치와 연구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및 성별에 따른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2) 정서학대와 정서방임과 주요 연구변인들 간의 고유한 관계를 파악하고자 성별, 연령, 신체학대, 신체방임, 성학대, 아동기 외상경험을 통제한 상태에서 정서학대와 정서방임과 주요 연구 변인들 간의 부분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3)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각 개념들의 통계적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측정모형의 유의성과 요인 부하량(λ = .5 ~ .95)을 통해 집중타당성을 검증하였고, 비제약 모형과 제약모형 간 χ^2의 차이를 분석하여 판별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χ^2의 차이 검증은 χ^2분포표(a = .05, $\Delta\chi^2$ > .38)와 비교하여, 유의하면 자유도가 작은 모형을 선택하고 유의하지 않으면 자유도가 큰 모형을 선택하였다. 4) 성별의 차이를 통제한 상태에서 정서학대, 정서방임, 부정정서강도, 낮은 정서인식명확성, 적응 및 부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 우울한 기분과 무쾌감성 우울 증상 간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AMOS 26 버전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SEM)을 실시하였다. 모형을 채택하기 위한 일반적 적합도 지수의 기준으로 절대적합지수에서 χ^2, RMSEA, 증분적합지수에서 IFI(Incremental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 Lewis Index)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IFI, CFI, TLI 값은 .9 이상이면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낸다. RMSEA는 .05 이하는 좋은 적합도, .08 이하는 양호한 적합도, .1 이하는 보통 적합도에 해당

표 1. 주요 연구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와 상관관계 및 성별에 따른 차이검증

연구 변인들	연령	정서 학대	정서 방임	신체 학대	신체 방임	성 학대	전체평균 (표준편차)	t
정서학대	.09						8.76(4.34)	-3.94***
정서방임	.14*	.74***					11.01(5.04)	-1.40
신체학대	.14*	.66***	.49***				7.99(4.06)	-.48
신체방임	.14*	.46***	.51***	.32***			7.36(2.76)	-.05
성학대	.02	.30***	.16**	.17**	.30***		5.36(1.80)	-.27
아동기 외상경험	.09	.62***	.54***	.51***	.32***	.26***	27.87(8.06)	-.85
부정정서강도	-.07	.25***	.18***	.16**	.11*	.03	44.63(9.04)	-2.33*
낮은 정서인식명확성	-.001	.29***	.36***	.20***	.31***	.16**	27.25(7.28)	-.84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	.11*	-.19**	-.29***	-.15**	-.09	-.02	64.48(11.34)	2.36*
부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	.08	.37***	.38***	.25***	.28***	.22***	44.09(9.55)	-.17
우울한 기분	.07	.51***	.56***	.34***	.45***	.14*	31.39(10.91)	-.25
무쾌감성 우울 증상	.10	.41***	.50***	.27***	.27***	.05	58.53(16.33)	1.29

주. t 검증 시, 1 = 남자, 2 = 여자

*p < .05 , **p < .01, ***p < .001

한다(홍세희, 2000). 5) 구조모형이 적합하고 각 경로가 유의한 경우, 개별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6)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더 큰 매개효과를 탐색하기 위하여 간접효과 간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Bootstrap 검증 시 95%의 신뢰구간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유의미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Shrout & Bolger, 2002).

결 과

주요 연구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와 상관관계 및 성별에 따른 차이검증

표 1에 연구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와 상관관계 및 성별에 따른 차이검증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아동학대 유형들 간의 상관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유형들과 아동기 외상 경험과의 상관도 유의미하게 높았다. 각각의 아동학대 하위유형들은 대부분의 정서조절능력들과 우울 증상들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서방임, 신체학대, 신체방임의 경험이 더 많았으며,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여자 대학생이 정서학대와 부정정서강도에서, 남자 대학생이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에서 유의미하게 더 높은 평균을 보이는 등 성별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정서학대와 정서방임과 정서조절능력들과 우울 증상들 간의 고유한 관계를 파악하고자 성별, 나이, 신체학대 등 다른 아동학대 유형들과 아동기 외상 경험을 통제한 상태에서 부분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에 정서학대와 정서방임과 주요 연구 변인들의 부분상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나이, 성별, 다른 아동학대 유형과 아동기 외상 경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정서학대는 부정정서강도와 적응적 및 부적응적

표 2. 정서학대와 정서방임과 주요 연구 변인들의 부분상관계수[a] 및 왜도와 첨도

	1	2	3	4	5	6	7	8
1. 정서학대	-							
2. 정서방임	.52***	-						
3. 부정 정서강도	.16**	.09	-					
4. 낮은 정서인식명확성	.09	.20***	.11	-				
5.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	-.12*	-.28***	.03	-.13*	-			
6. 부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	.18**	.21***	.39***	.37***	.03	-		
7. 우울한 기분	.27***	.33***	.32***	.48***	-.19**	.50***	-	
8. 무쾌감성 우울 증상	.28***	.39***	.19**	.47***	-.37***	.37**	.66***	
왜도	1.28	.72	-.19	.32	-.31	-.07	.60	.18
첨도	.86	-.27	.27	.03	.66	-.04	-.23	-.25

[a]성별, 나이, 신체학대, 신체방임, 성학대, 아동기 외상경험을 공변인으로 통제

* $p < .05$, ** $p < .01$, *** $p < .001$

인지정서조절전략과 우울한 기분과 무쾌감성 우울 증상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정서방임 또한 낮은 정서인식명확성과 적응적 및 부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과 우울한 기분과 무쾌감성 우울 증상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이처럼 공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정서학대와 정서방임은 대부분의 정서조절능력들과 우울 증상들과 고유하게 관련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정서학대와 정서방임이 정서조절능력들과 우울 증상들과 어떠한 차별적인 관련성과 경로를 갖는지를 파악하고자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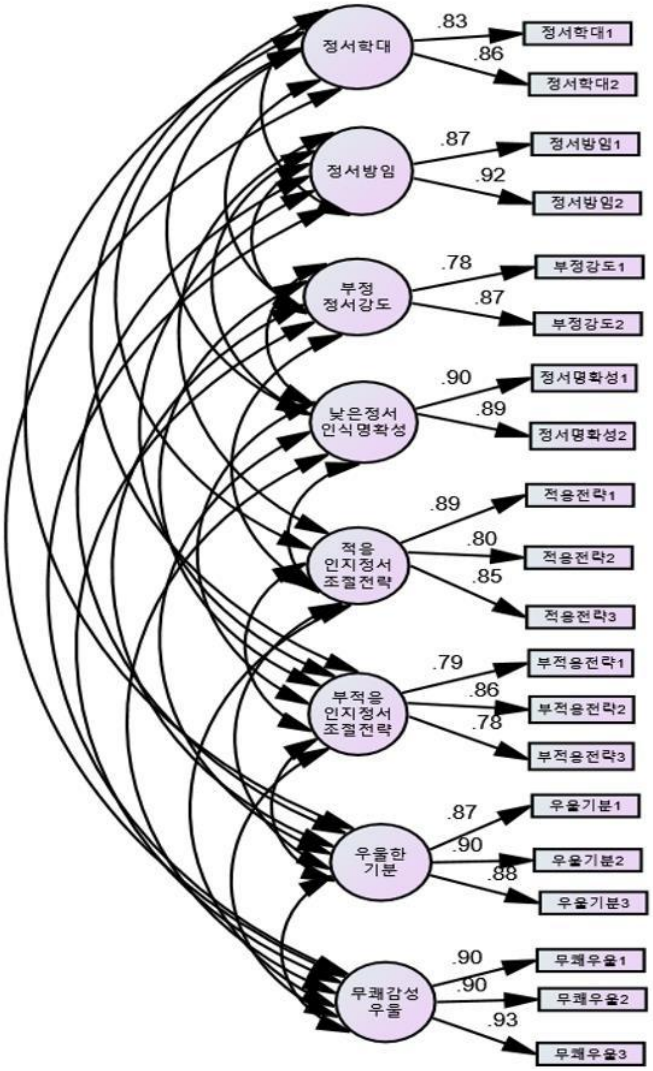

그림 2. 측정모형의 표준화된 요인 부하량

전에 자료가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다변량 측정치의 정규성이 위배되지 않는 기준은 측정변인의 왜도(skewness)가 < 2, 첨도(kurtosis)가 < 7이다(Curran, West, & Finch, 1996). 본 연구의 측정변인들의 왜도와 첨도 값은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학대, 정서방임, 부정정서강도, 낮은 정서인식명확성, 적응 및 부적응 인지정서조절전략, 우울한 기분, 무쾌감성 우울 증상을 측정하는 변인들이 잠재변인을 타당하게 측정하고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측정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본 연구의 측정 모형은 좋은 적합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hi^2(142) = 249.27$, $p < .001$, IFI = .98, TLI = .97, CFI = .98, RMSEA = .05. 잠재변인과 측정변인 간의 표준화된 요인 부하량은 모두 .78 ~ .93으로 $p < .001$(C.R. > 1.96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집중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은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과 부정 정서강도(r = -.05, ns),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과 부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r = -.03, ns)을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r = -.42 ~ -.21, .18 ~ .87, $P < .01$.

판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관이 가장

표 3. 연구모형의 적합도

모형	χ^2	df	IFI	TLI	CFI	RMSEA
연구모형	430.9***	171	.95	.93	.95	.069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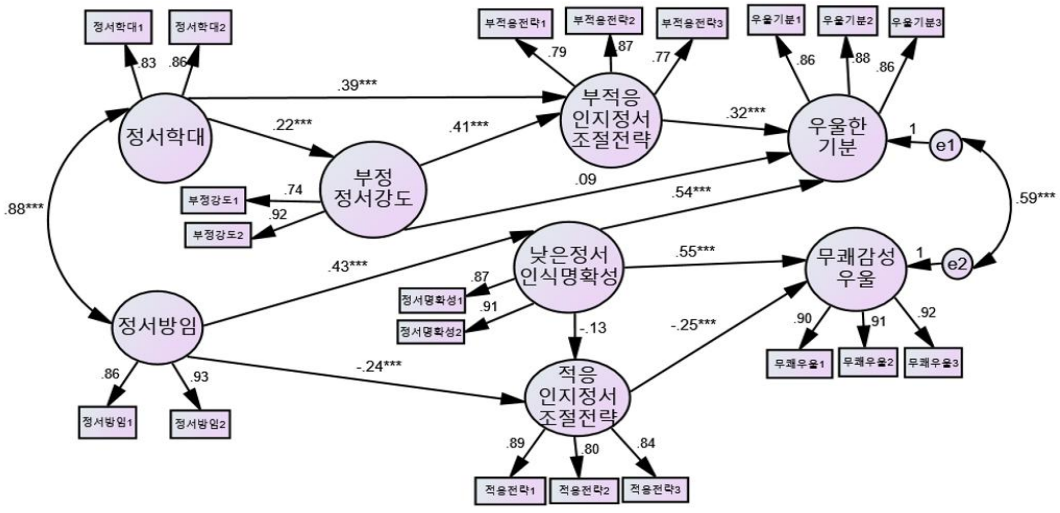

그림 3. 연구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p < .001$

높은 정서학대와 정서방임 간의 공분산을 1로 고정시킨 제약모델과 비제약모델의 χ^2차이를 비교한 결과, 두 모델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모델: $\chi^2(143) = 389.28/143$ - 비제약모델: $\chi^2(142) = 249.27/142 = \Delta\chi^2(1) = 140.01$.

연구모형의 검증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표 3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적합도 지수는 모두 양호하였다, $\chi^2(171) = 430.9$, $p < .001$, IFI = .95, TLI = .93, CFI = .95, RMSEA = .069. 이는 연구모형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자료를 설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여, 그림 3에 연구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를 제시하였다(모형의 복잡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통제변인으로 사용된 성별 변인의 경로는 생략함). 부정정서강도에서 우울한 기분으로 가는 경로와 낮은 정서인식명확성에서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으로 가는 경로를 제외하고, $\beta = .09$, $\beta = -.13$, *ns,* 모든 경로가 유의하였다.

매개효과

채택된 연구모형의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 방법은 간접효과에 대한 신뢰구간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보고한다(Shrout & Bolger, 2002). 표 4에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정서학대와 우울한 기분 간의 관계에서 부정정서강도와 부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의 연속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또한 정서학대와 우울한 기분 간의 관계에서 부정정서강도와 부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의 단순 매개효과가 각각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서방임과 우울한 기

표 4. 개별 간접효과의 유의미성 검증

경로	*B*	*S.E.*	95% 신뢰구간	
			LOWER	UPPER
정서학대 -> 부정정서강도 -> 부적응 인지정서조절전략 -> 우울한 기분	.04**	.02	.01	.08
정서학대 -> 부정정서강도 -> 우울한 기분	.03*	03	.001	.11
정서학대 -> 부적응 인지정서조절전략 -> 우울한 기분	.17**	.05	.09	.26
정서방임 -> 낮은 정서인식명확성 ->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 -> 무쾌감성 우울증상	.04	.02	-.001	.10
정서방임 -> 낮은 정서인식명확성 -> 무쾌감성 우울증상	.66**	.15	.39	.98
정서방임 ->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 -> 무쾌감성 우울증상	.17**	.07	.06	.34
정서방임 -> 낮은 정서인식명확성 -> 우울한 기분	.33**	.08	.19	.51

주. $N = 323$, Bootstrap sample = 2000

$^*p < .05$, $^{**}p < .01$

표 5. 두 간접 경로들 간의 차이 검증

경 로	*B*	*S.E.*	95% 신뢰구간	
			LOWER	UPPER
A - B	.01	.03	-.03	.07
A - C	-.13**	.05	-.25	-.04
B - C	-.14*	.06	-.26	-.02
D - E	.49**	.16	.18	.82

주. N = 323, Bootstrap sample = 2000

A: 정서학대 -> 부정정서강도 -> 부적응 인지정서조절전략 -> 우울한 기분

B: 정서학대 -> 부정정서강도 -> 우울한 기분

C: 정서학대 -> 부적응 인지정서조절전략 -> 우울한 기분

D: 정서방임 -> 낮은 정서인식명확성 -> 무쾌감성 우울 증상

E: 정서방임 ->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 -> 무쾌감성 우울 증상

$^{*}p < .05$, $^{**}p < .01$

분 간의 관계에서 낮은 정서인식명확성의 단순 매개효과가 유의미하였다. 정서방임과 무쾌감성 우울 증상 간의 관계에서 낮은 정서인식명확성과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의 단순 매개효과가 각각 유의미하였다. 하지만 정서방임과 무쾌감성 우울 증상 간의 관계에서 낮은 정서인식명확성과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의 연속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정서학대와 정서방임과 우울 증상들 간의 관계에서 어떤 간접 경로가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갖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두 간접 경로들 간의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정서학대와 우울한 기분 간의 관계에서 연속 매개효과와 단순 매개효과 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부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의 단순 매개효과가 부정정서강도와 부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의 연속 매개효과와 부정정서강도의 단순 매개효과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가졌다. 반면, 부정정서강도와 부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의 연속 매개효과와 부정정서강도의 단순 매개효과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정서방임과 무쾌감성 우울 증상에 대한 정서인식명확성과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의 간접 경로들 간의 차이 검증 결과, 정서인식명확성의 매개효과가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졌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아동기 정서학대와 정서방임의 경험이 우울한 기분이나 무쾌감성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기저 하는 차별적인 기제를 밝히고자,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통해 정서학대와 정서방임을 한 모형 안에서 통합적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정서학대와

우울한 기분 간의 관계를 부정정서강도와 부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이 연속 매개하는 동시에 부정정서강도와 부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이 각각 단순 매개하였다. 반면, 정서방임과 무쾌감성 우울 증상 간의 관계를 낮은 정서인식명확성과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의 부족이 각각 단순 매개하였다. 정서방임과 우울한 기분 간의 관계를 낮은 정서인식명확성이 단순 매개하였다. 이에 대한 논의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학대와 우울한 기분 간의 관계에 대한 부정정서강도와 부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의 연속 매개효과와 부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의 단순 매개효과는 선행연구와 일관된다. 즉, 정서학대를 포함한 대인간 외상이 부정정서강도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으며(송승아, 2019; Gordon et al., 2016), 부정정서강도는 부적응적 정서조절이나 정서조절기술의 결핍을 거쳐 우울이나 불안 등 고통스러운 정서로 이어졌다(구훈정 등, 2014; Flett, Blankstein, & Obertynski, 1996). 또한 부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Huh et al., 2017)이나 역기능적 정서조절능력(Crow et al., 2014)이 정서학대와 우울증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한편 선행연구(구훈정 등 2014; Flett et al., 1996)와 달리, 부정정서강도는 정서학대와 우울한 기분 간의 관계를 단순 매개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정서학대와 우울증 간의 관계에서 부정정서강도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우울증을 단일 개념으로 평가한 것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무쾌감증은 오히려 부정적 자극에 대해 둔화된(blunted) 정서반응을 야기하기 때문에(Saxena, Luking, Barch, & Pagliaccio, 2017), 우울증을 단일 개념으로 측정하였을 경우에 무쾌감성 우울 증상이 우울한 기분과 부정정서강도 간의 관계를 상쇄시켰을 수 있다. 따라서 정서학대와 우울증 간의 관계에서 부정정서강도의 매개 역할을 민감하게 감지하기 위해서는 개별 우울 증상을 세심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또한 부정정서강도/반응성이 우울한 기분과 무쾌감성 우울 증상과 다른 관련성을 가질 가능성을 시사하는 바, 이에 대한 더 많은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McLaughlin(2016)은 아동기에 학대와 같은 위협적 환경 노출은 공포 학습에 기저 하는 신경회로와 연상 학습 기제를 통해 정서적 반응과 정서처리의 패턴의 변형을 가져오게 된다고 제안하였다. 아동은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양육자의 적대적이고 거부적인 반응을 모델링하거나 양육자의 처벌적이거나 경멸적인 정서표현과 상호작용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처가 강화 받는 학습 경험을 통해 부정적인 정보처리 패턴과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을 발달시키게 된다고 본다. 이와 일치하게 애착외상 등 위협적인 초기 환경에 노출된 경우에 부정적 정서 단서에서 뿐만 아니라 중립적 자극에서도 뇌의 시상-편도체 회로의 과활성화와 자율신경계에서 스트레스 반응을 보였다(Ehring & Quack, 2010; McLaughlin, 2016; McLaughlin et al., 2014). 아동기에 정서적으로 학대 받은 사람은 부정적 추론 양식과 반추를 보였으며, 부정적 추론 양식이나 몰두가 정서학대와 우울증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다(Gibb & Abela, 2008; Liu, Choi, Boland, Mastin, & Alloy, 2013; O'Mahen et al., 2015; Padilla Paredes & Clavete., 2014; Spasojević & Alloy, 2002). 이러한 결과들은 정서학대가 우울증의 발달과 유지와 관련성이 높은 부정적인 인지(Rose & Abramson, 1992)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사고

를 반복적으로 반추하는 반응양식의 발달(Nolen-Hoeksema, Girgus, & Seligman, 1992)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를 종합하면, 부정정서강도와 부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이 정서학대가 우울한 기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하는 주요 기제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둘째, 정서방임과 무쾌감성 우울 증상 간의 관계를 낮은 정서인식명확성과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의 부족이 각각 단순 매개하였다. 이는 정서방임과 우울증 간의 관계를 정서인식명확성(Jessar et al., 2017)과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Huh et al., 2017)이 매개하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 McLaughlin(2016)은 박탈된 환경 노출의 경우에는 보상 학습이라는 경로를 통해 정서처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가정한다. 특히, 방임과 같은 박탈된 환경은 학습 기회의 부재를 특징으로 한다. 즉, 정서적으로 방임하는 양육자는 일상생활 속에서 일관되게 낮은 수준의 긍정적 강화를 제공하게 되고, 이는 아동에게 정서에 접근하고 인내하는 법을 배울 기회를 차단하게 된다. 그 대신 아동은 양육자의 행동적 철수와 정서적 무시와 회피를 모델링하게 된다(O'Mahen et al., 2015). 양육자와의 정서적 교류 및 상호작용의 제한으로 인한 학습 기회의 부재는 결국 아동의 정서인식능력과 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의 습득과 발달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Geoffroy, Pinto Pereira, Li & Power, 2016; Hogeveen, Salvi, & Grafman, 2016; McLaughlin, 2016; McLaughlin et al., 2014; Mulholland, 2010). 선행연구들에서 아동기 정서방임은 정서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의 어려움(Brown et al., 2017; Frewen et al., 2008; Young & Widom, 2014)과 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의 부족(Aust et al., 2013; Mills et al., 2015)과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낮은 정서인식명확성과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의 부족이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거나 환경적 보상을 얻을 기회를 앗아가게 되면서 무쾌감성 우울에 취약해지게 된다(Aoki et al., 2019; Werner-Seidler, Banks, Dunn & Moulds, 2013). 이러한 결과들은 낮은 정서인식명확성과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의 부족이 정서방임이 무쾌감성 우울 증상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특정적 기제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정서방임과 무쾌감성 우울 증상 간의 관계를 정서인식명확성과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이 연속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이는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이 정서인식명확성과 우울 간의 관계를 매개한 선행연구와 일치하지 않은 결과이다(김보균, 이민규, 2019; 김예은, 송원영, 2017). 본 연구에서 정서인식명확성과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 간의 연속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낮은 정서인식명확성이 직접 무쾌감성 우울 증상뿐만 아니라 우울한 기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면서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과의 관련성은 상쇄되었을 수 있겠다. 간접경로들 간의 차이검증에서 무쾌감성 우울 증상에 미치는 낮은 정서인식명확성의 매개효과는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보다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더 컸다. 선행연구에서 정서인식명확성은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을 거쳐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지만, 직접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쳤다(김예은, 송원영, 2017). 이는 주관적인 안녕감이나 만족감에 미치는 정서인식명확성만의 독립적인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앞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아동기 정서방임과 무쾌감

성 우울 증상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정서인식명확성과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 간의 관계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셋째, 정서방임과 우울한 기분 간의 관계는 낮은 정서인식명확성이 단순 매개하였다. 이는 정서방임은 정서학대와 다른 경로를 통해 우울한 기분에 고유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와 일치하게 선행연구에서도 정서방임이 유일하게 정서인식명확성을 완전 매개로 우울증을 예측하였다(Jessar, et al., 2017). 이러한 결과들은 아동기 정서방임이 정서인식명확성의 결함의 선행 위험요인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아동기 정서방임이 아동의 정서인식능력의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며, 낮은 정서인식명확성은 이후 우울한 기분과 무쾌감성 우울 증상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정서적으로 방임하는 부모는 아동의 기분이나 욕구에 적절한 정서적 반영이나 반응, 조율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아동은 자신의 정서에 주의를 기울이고 인식하고 체득할 학습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다(Jessar et al., 2017; Mulholland, 2010). 이로 인해 정서적으로 학대 받은 사람은 비록 정서조절 단계에서 정보처리가 부정적으로 편향되더라도 정서에 주의를 기울이고 인식하는 반면, 정서적으로 방임된 사람은 정서에 대한 주의와 인식 자체가 부족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김은정, 김진숙, 2020). 방임된 아동은 슬픔이나 분노 등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이해가 낮았으며, 부정적 정서의 표현을 억제하려는 시도를 더 많이 보였다(Shipman, Edwards, Brown, Swisher, & Jennings, 2005). 낮은 정서인식은 부정적인 정서 상태나 낮은 긍정적 정서 및 흥미 상태를 지속시켜서 우울한 기분이나 무쾌감성 우울 증상으로 발현되게 된다(Berenbaum et al., 2012; Saarni, 2000).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지금까지 선행연구(Cohen et al., 2019; van Veen et al., 2013)에서 정서학대는 우울한 기분에, 정서방임은 우울한 기분과 무쾌감성 우울 증상에 고유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어떠한 차별적인 기제를 통해 정서학대와 정서방임이 우울한 기분이나 무쾌감성 우울 증상에 고유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지를 조사한 경험적 연구는 부재하였다. 본 연구는 정서학대와 정서방임이 우울한 기분이나 무쾌감성 우울 증상에 고유한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다른 정서조절능력들이 관여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밝혔다는 데에 의의가 크다. 더욱이 한 모형 안에서 정서학대와 정서방임을 직접 비교하고 검증함으로써, 우울한 기분과 무쾌감성 우울 증상에 대한 정서학대와 정서방임의 차별적인 기제를 더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었다.

둘째, 정서를 경험하고 인식하는 단계(부정정서강도, 낮은 정서인식명확성)와 정서를 조절하고 대처하는 전략 단계(적응 및 부적응 인지정서조절전략)에서 각각 다른 정서조절능력이 정서학대와 정서방임과 우울한 기분 및 무쾌감성 우울 증상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최근 연구자들은 정서조절능력을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정서조절능력은 내적 경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유연하게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하고 개발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사건으로 인한 생리적 변화나 정서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도 포괄하는 다차원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개념화하고 있

다(Coates & Messman-Moore, 2014; Crow et al., 2014; McLaughlin, 2016; Schulz et al., 2017). 또한 정서조절을 이루는 각 요소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기능하며 상이한 행동패턴이나 적응양상을 나타내게 된다고 가정한다(최해연, 2013; McLaughlin, 2016). 하지만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은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이루어진 정서조절능력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 개념(예: 정서조절곤란)으로 혹은 한 두 개의 특정 정서조절능력(예: 정서인식명확성, 반추 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있어(Brown et al., 2016; Crow et al., 2014; Gibb & Abela, 2008; Huh et al., 2017; Jessar et al., 2017; O'Mahen et al., 2015), 정서학대와 정서방임과 우울 증상들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의 각 단계에서 어떤 정서조절능력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각 단계에서의 정서조절능력들이 어떠한 유기적 관계를 갖는지를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셋째, 본 연구결과는 아동기에 정서학대와 정서방임에 노출된 우울한 사람들을 위한 치료적 전략을 세우고 이에 맞는 개입을 적용할 때, 고려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즉, 노출된 심리적 학대의 유형에 따라 겪는 우울 증상이 다를 수 있고, 같은 증상이라도 다른 정서조절 경로를 통해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경험한 심리적 학대의 유형에 따라 겪고 있는 우울 증상과 개인의 정서조절능력들을 면밀히 탐색하여 이에 맞는 치료적 전략과 개입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아동기 정서학대로 인해 우울한 기분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정정서강도의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고 부적응적 인지와 반응양식을 개선하기 위한 치료적 접근이 유용할 할 것이다. 마음챙김이나 인지행동치료에 근거한 증거 기반 심리치료들이 부정적 정서 및 각종 신체적 증상과 더불어 반추 및 부정적 인지의 감소와 낮은 자존감의 회복에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다(김지인, 권호인, 2019; 최연희, 변상해, 2017; Hawley et al., 2014; Joss & Teicher, 2021).

반면, 아동기 정서방임으로 인해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우울한 기분과 무쾌감성 우울 증상의 개선을 위해서는 자신의 정서를 잘 알아차리고 수용하는 능력과 더불어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입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수용전념치료는 전통적인 인지행동치료나 행동치료처럼 인지나 행동을 직접 바꾸고 부정적인 감정을 제거하기보다 긍정적 감정과 생각뿐만 아니라 부정적 감정과 생각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현재 순간에 접촉하며 자신의 목적과 가치를 추구하는 행동에 전념하도록 한다(Zettle, 2007). 따라서 긍정이든 부정이든 정서 자체를 인식하고 경험하는 것을 저항하고 적응적인 정서조절전략이 부족한 아동기 정서방임의 피해자에게는 수용전념치료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Werner-Seidler et al., 2013). 최근 긍정 정서를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치료법 또한 우울증의 우울한 기분의 감소뿐만 아니라 무쾌감성 우울 증상의 회복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우울증에 대한 행동활성화 치료를 기반으로 경험한 긍정 정서를 유지하고 정교화할 수 있도록 긍정반추와 가라앉히기를 활용한 치료 모듈이 우울증에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McMakin, Siegle, & Shirk, 2011). 또한 Seligman(2002)의 행복이론을 바탕으로 한 긍정심리치료도 긍정 정서, 강점, 삶의 의미를 증진시키는 치료방법으로 우울증 치료와 더불어 행복 증진에 효과적이었다. 우울증에 수반되는 정서적 고통을 수용하고 지금 여기에서 긍

정 정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수용전념치료와 긍정심리치료를 통합한 수용적 긍정심리치료가 대학생의 우울 증상을 완화시키고, 행복을 증진시켰다(정나래, 김은정, 2021).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연구로 연구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확신할 수 없다. 따라서 종단연구나 전향적 연구를 통해, 본 연구결과를 반복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아동학대 경험, 정서조절능력, 우울 증상은 모두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관적인 보고로 인한 인지적 왜곡이나 오류, 방어적 태도가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면담기법이나 다양한 평가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측정에 대한 타당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성인 진입기에 해당하는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그 외에 다른 연령이나 집단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연령이나 임상집단이나 아동학대 피해자 집단 등 다양한 집단을 통해 본 연구결과를 다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 정서학대, 부정정서강도,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에서 성별의 차이가 나타났으나, 남·녀 간의 표본의 크기 차이가 약 3배로 크고 남자 대학생의 표본수가 81명으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서 직접적으로 성별차이를 확인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성인의 우울증의 유병율(여자의 우울증 유병율이 남자보다 약 2배 정도 높음)과 정서처리에 있어서 성별차이는 오랫동안 확인되어 왔다(APA, 2013; Brown et al., 2017). 이에 더해 선행연구에서 심리적 학대의 하위유형이 이후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성별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여자 청소년은 양육자의 비하가 우울 증상에 영향을 미친 반면, 남자 청소년은 고립이 우울 증상에 영향을 미쳤다(Paul & Eckenrode, 2015). 또한 정서학대와 정서방임과 기분 확인 곤란 간의 관계에서도 성별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정서학대의 경우, 여자만이 정서학대와 기분 확인 곤란의 어려움의 관계가 유의하였다. 정서방임의 경우, 남·녀 모두에서 정서방임과 기분 확인 곤란의 관계가 유의하였다(Brown et al., 2017). 이처럼 정서학대와 정서방임과 우울 증상 간의 관계와 이를 매개하는 정서조절능력에 있어서 성별의 조절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정서학대와 정서방임이 이후 우울한 기분과 무쾌감성 우울 증상과 이에 기저하는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성별차이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고나래 (2008). 아동 및 청소년기 복합외상경험이 정서조절과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구훈정, 조현주, 이종선 (2014).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 정서강도와 자해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정서조절과 부정정서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4(2), 191-216.

김보균, 이민규 (2019). 마음챙김과 우울의 관계: 정서인식명확성과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간접효과. 청소년학연구, 26(12), 355-376.

김소희 (2004). 스트레스 사건,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가톨릭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예은, 송원영 (2017). 청소년의 정서인식명확성이 심리적 안녕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2(4), 1075-1093.

김은석 (2021).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대학생의 우울 간의 관계: 자기자비로 조절된 자기냉담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33(4), 1651-1669.

김은정, 김진숙 (2020).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성인기 정신병리 및 대인관계의 문제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의 차별적 경로를 중심으로. 상담학 연구, 21(3), 23-44.

김지인, 권호인 (2019). 우울증의 근거기반치료에 대한 고찰.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8*(4), 388-399.

민혜원 (2016). 미래에 대한 심상적 처리가 즐거움 경험과 무쾌감성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배성우, 신원식 (2005).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의 요인구조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방법의 적용. 보건과 사회과학, 12, 165-190.

석애란, 김영근 (2018).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아시아교육연구, 19(2), 305-329.

송승아 (2019). 생애 초기 애착외상과 경험회피의 관계: 부정정서강도와 고통감내력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안현의, 이나빈, 주혜선 (2013). 한국판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척도(K-CERQ)의 타당화. 상담학 연구, 14(3), 1773-1794.

옥수정 (2001). 억압적 성격 성향자의 정서적 특징과 정서조절 방략.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유재학, 박지선, 유승호, 하지현 (2009). 한국판 아동기 외상 질문지의 타당화: 상담 및 치료적 개입에서의 활용.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3), 563-578.

이수정, 이훈구 (1997). Trait Meta-Mood Scale의 타당화에 관한 연구: 정서지능의 하위 요인에 대한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 95-116.

이영호, 이기련 (1998). 정동성과 스트레스 유형이 우울과 불안의 공통 증상과 특정 증상에 미치는 영향.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7*(2), 69-86.

이지영 (2016). 정서강도와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방략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학회지, 16(2), 61-84.

이지영, 김은하 (2018). 긍정 정서강도와 부정 정서강도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7(3), 411-439.

이현, 김근향 (2014). 한국판 기분 및 불안 증상 질문지(K-MASQ)의 타당화.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3*(2), 395-411.

전겸구,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 59-76.

전선영 (2021). 대학생의 우울 증상에 미치는 정서학대와 정서방임의 영향과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정나래, 김은정 (2021). 우울 증상이 있는 대학생을 위한 집단 수용전념치료와 집단 긍정수용전념치료의 효과. 청소년학연구, 28

(1), 79-113.

최연희, 변상해 (2017). 만성 우울증에 대한 마음챙김 기반 인지치료(MBCT)의 치료기제와 임상적 적용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8(7), 237-248.

최해연 (2013). 정서처리유형의 구분에 따른 정서경험과 대처방식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7(1), 1-15.

한정원 (1997). 정서 표현성이 건강 및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61-177.

American Professional Society on the Abuse of Children(APSAC). (2017). *The investigation and determination of suspected psychological maltreatmen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Retrieved from https://www.apsac.org/guidelines.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APA). (2013).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 제5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권준수 등 역, 2015). 서울: 학지사.

Aoki, S., Doi, S., Horiuchi, S., Takagaki, K., Kawamura, A., Umeno, R., ... Sakano, Y. (2019). Mediating of environmental rewards on the relation between goal-directed behaviour and anhedonia. *Current Psychology, 12,* 1-8.

Aust, S., Härtwig, E. A., Heuser, I., & Bajbouj, M. (2013). The role of early emotional neglect in alexithymia.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5,* 225-232.

Barrett, L. F., Gross, J., Christensen, T. C., & Benvenuto, M. (2001). Knowing what you're feeling and knowing what to do about it: Mapping the relation between emotion differentiation and emotion regulation. *Cognition and Emotion, 15*, 713-724.

Bennki, E. C., Nederhof, E., Ormel, J., & Oldehinke, A. J. (2014). Anhedonia and depressed mood in adolescence: course, stability, and reciprocal relation in the TRAILS study. *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23,* 579-586.

Berenbaum, H., Bredemeire, K., Thompson, R. J., & Boden, M. T. (2012). Worry, anhedonic depression, and emotional style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6,* 72-80.

Bernstein, D. P., & Fink, L. (1998).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A retrospective self-report manual*. San Antonio, TX: Harcourt Brace.

Bogdan, R., Pringle, P. L., Goetz, E. L., & Pizzagalli, D. A. (2012). Perceived stress, anhehonia and illusion of control: Evidence for two mediational models. *Cognitive Therapy & Research, 31*, 827-832.

Brassard, M. R., Hart, S. N., & Hardy, D. B. (1993). The Psychological Maltreatment Rating Scales. *Child Abuse & Neglect, 17,* 715-729.

Brown, S., Fite, P. J., Stone, K., & Bortolato, M. (2016). Accounting for the associations between child maltreatment and internalizing problems: The role of alexithymia. *Child Abuse & Neglect, 52,* 20-28.

Brown, S., Fite, P. J., Stone, K., Richey, A., & Bortolato, M. (2017). Associations between emotional abuse and neglect and dimensions

of alexithymia: The moderating role of sex.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1-9. Advance online publication.

Bryant, F. B., Yarnold, P. R., Grimm, L. G. (1996). Toward a measurement model of the Affect Intensity Measure: A three-factor structur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0,* 223-247.

Cecil, C. A. M., Viding, E., Fearon, P., Glaser, D., & McCrory, E. J. (2017). Disentangling the mental health impact of child abuse and neglect. *Child Abuse & Neglect, 63,* 106-119.

Clarke, S. (2015). *Emotional abuse and emotional neglect in childhood: Subtypes, ecological correlates, and development tasks of emerging adulthood*. The University of Minnesota: Doctoral Dissertation.

Coates, A. A., & Messman-Moore, T. (2014). A structural model of mechanisms predicting depressive symptoms in women following childhood psychological maltreatment. *Child Abuse & Neglect, 38,* 103-113.

Cohen, J. R., McNeil, S. L., Shorey, R. C., & Temple, J. R. (2019). Maltreatment subtypes, depressed mood, and anhedonia: A longitudinal study with adolescents.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11*(7), 704-712.

Conway, C. C., Zinbarg, R. E., Mineka, S., & Craske, M. G. (2017). Core dimensions of anxiety and depression change independently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26(2),* 160-172.

Cramer, A. O. J., Waldorp, L. J., van der Maas, H. L. J., & Borsboom, D. (2010). Comorbidity: A network perspective.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33,* 137-150.

Crow, T., Cross, D., Powers, A., & Bradley, B. (2014). Emotion dysregulation as a mediator between childhood emotional abuse and current depression in a low-income African-American sample. *Child Abuse & Neglect, 38,* 1590-1598.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de Oliveira I. R., Matos-Ragazzo, A. C., Zhang, Y., Vasconcelos, N. M., Velasquez, M. L., Reis, D., ... Cecil, C. A. M. (2018). Disentangling the mental health impact of childhood abuse and neglect: A replication and extension study in a Brazilian sample of high-risk youth. *Child Abuse & Neglect, 80,* 312-323.

Dunn, B. D., Stefanovitch, I., Buchan, K., Lawrence, A. D., & Dalgleish, T. (2009). A reduction in positive self-judgment bias is uniquely related to the anhedonic symptoms of depression.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7*, 374-381.

Egeland, B. (2009). Taking stock: Childhood emotional maltreatment and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Child Abuse & Neglect, 33,* 22-26.

Ehring, T., & Quack, D. (2010). Emotion regulation difficulties in trauma survivors: The role of trauma type and PTSD symptoms severity. *Behavior Therapy, 41,* 587-598.

Flett, G. L., Blankstein, K. R., & Obertynski,

M. (1996). Affect intensity, coping styles, mood regulation expectancies, and depressive sympto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0*(2), 221-228.

Frewen, P. A., Lanius, R. A., Dozois, D. J. A., Neufield, R. W. J., Pain, C., Hopper, J. W., ... Stevens, T. K. (2008). Clinical and neural correlates of alexithymia i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7*(1), 171-181.

Fried, E. I., Nesse, R. M., Zivin, K., Guille, C., & Sen, S. (2014). Depression is more than the sum score of its parts: Individual DSM symptoms have different risk factors. *Psychological Medicine, 44*(10), 2067-2076.

Garnefski, N., & Kraaij, V. (2006). Relationships between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depressive symptoms: A comparative study of five specific sampl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40*(8), 1659-1669.

Garnefski, N., Kraaij, V., & Spinhoven, P. (2001). Negative life event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emotional proble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 1311-1327.

Geoffroy, M. C., Pinto Pereira, S., Li, L., & Power, C. (2016). Child neglect and maltreatment and childhood-to-adulthood cognition and mental health in a prospective birth cohort.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55,* 33-40.

Gibb, B. E., & Abela, J. R. Z. (2008). Emotional abuse, verbal victim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negative inferential styles and depressive symptom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2,* 161-176.

Glaser, D. (2011). How to deal with emotional abuse and neglect-Further development of a conceptual framework (FRAMEA). *Child Abuse & Neglect, 35,* 866-875.

Gordon, K. H., Simonich, H., Wonderlich, S. A., Dhankikar, S., Crosby, R. D., Cao, L., ... Engel, S. G. (2016). Emotion dysregulation and affective intensit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abuse and suicide-related behaviors among women with bulimia nervosa.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46*(1), 79-87.

Hamilton, J. L., Shapero, B. G., Stange, J. P., Hamlat, E. J., Abramson, L. Y., & Alloy, L. B. (2013). Emotional maltreatment, peer victimization, and depressive versus anxiety symptoms during adolescence: Hopelessness as a mediator.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42*(3), 332-347.

Hasler, G., & Northoff, G. (2011). Discovering imaging endopheno types for major depression. *Molecular Psyhiatry, 16,* 604-619.

Hawley, L. L., Schwartz, D., Bieling, P. J., Irving, J., Corcoran, K., Farb, N. A. S., ... Segal. Z. V. (2014). Mindfulness practice, rumination and clinical outcome in mindfulness-based treatment.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8*, 1-9.

Hodgdon, H. B., Spinazzolac, J., Briggs, E. C., Liangf, L. J., Steinbergg, A. M., & Layneg, C. M. (2018). Maltreatment type, exposure characteristics, and mental health outcomes among clinic referred trauma-exposed youth. *Child Abuse & Neglect, 82,* 12-22.

Hogeveen, J., Salvi, C., & Grafman, J. (2016).

'Emotional intelligence': Lessons from lesions. *Trends in Neurosciences, 39,* 694-705.

Huh, H. J., Kim, K. H., Lee, H. K., & Chae, J. H. (2017).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the severity of adulthood depression and anxiety symptoms in a clinical sample: The mediating role of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13,* 44-50.

Humphreys, K. L., LeMoult, J., Wear, J. G., Piersiak, H. A., Lee, A., & Gotlib, I. H. (2020). Child maltreatment and depression: A meta-analysis of studies using the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Child Abuse & Neglect, 102*, 1-20.

Jessar, A. J., Hamilton, J. L., Flynn, M., Abramson, L. Y., & Alloy, L. B. (2017). Emotional clarity as a mechanism linking emotional neglect and depressive symptoms during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7*(3), 414-432.

Joss, D. & Teicher, M. H. (2021). Clinical effects of mindfulness-based interventions for adults with a history of childhood maltreatment: A scoping review. *Current Treatment Options in Psychiatry, 8*(2), 31-46.

Kendler, K. S., Aggen, S. H., & Neale, M. C. (2013). Evidence for multiple genetic factors underlying DSM-IV criteria for major depression. *JAMA Psychiatry, 70*(6), 599-607.

Kuo, J. R., Goldin, P. R., Werner, K., Richard, G., & Gross, J. J. (2011). Childhood trauma and current psychological functioning in adults with social anxiety disorder.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5,* 467-473.

Larsen, R. J., & Diener, E. (1987). Affect intensity as an individual difference characteristic: A review.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1*(1), 1-39.

Li, Q., Guo, L., Zhang, S., Wang, W., Li, W., Chen, X., ... Mclntyre, R. S. (2021).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emotional abuse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Chinese students: The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 288*(1), 129-135.

Linehan, M. M., & Kehrer, C. A. (1993).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In D. H. Barlow (Ed.), *Clinical handbook of psychological disorders* (2nd ed., pp. 396-441). New York: Guilford Press.

Liu, R. T., Choi, J. Y., Boland, E. M., Mastin, B. M., & Alloy, L. B. (2013). Childhood abuse and stress generation: The mediational effect of depressogenic cognitive styles. *Psychiatry Research, 206,* 217-222.

McLaughlin, K. A. (2016). Future directions in childhood adversity and you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45*(3), 361-382.

McLaughlin, K. A., Sheridan, M. A., & Lambert, H. K. (2014). Childhood adversity and neural development: Deprivation and threat as distinct dimensions of early experience. *Neuroscience and Biobehavioral Reviews, 47,* 578-591.

McMakin, D. L., Siegle, G. J., & Shirk, S. R. (2011). Positive Affect Stimulation and Sustainment(PASS) module for depressed mood: A preliminary investigation of treatment-

related effect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5*(3), 217-226.

Mennin, D. S., Holaway, R. M., Fresco, D. M., Moore, M. T., & Heimberg, R. G. (2007). Delineating components of emotion and its dysregulation in anxiety and mood psychopathology. *Behavior Therapy, 38*, 284-302.

Mills, P., Newman, E. F., Cossar, J., & Murray, G. (2015). Emotional maltreatment and disordered eating in adolescents: Testing the mediating role of emotion regulation. *Child Abuse & Neglect, 39,* 156-166.

Morris, A. S., Silk, J. S., Steinberg, L., Myers, S. S., & Robinson, L. R. (2007). The role of the family context in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Social Development, 16*(2), 361-388.

Mulholland, P. (2010). *Childhood emotional maltreatment and its impact on emotion regulation*. Doctorate in Clinical Psychology thesis. UK: The University of Edinburgh.

Nolen-Hoeksema, S., Girgus, J. S., & Seligman, M. E. P. (1992). Predictors and consequences of childhood depressive symptoms: A 5-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 405-422.

Nolen-Hoeksema, S., & Watkins, E. (2011). A heuristic for developing transdiagnostic models of psychopathology: Explaining multifinality and divergent trajectories.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6*, 589-609.

O'Mahen, H. A., Karl, A., Moberly, N., & Fedock, G. (2015). The association between childhood maltreatment and emotion regulation: Two different mechanisms contributing to depression?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74,* 287-295.

Padilla Paredes, P., & Calvete, E. (2014). Cognitive vulnerabilities as mediators between emotional abuse and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2,* 743-753.

Paul, E., & Eckenrode, J. (2015). Childhood psychological maltreatment subtype and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s. *Child Abuse & Neglect, 47*, 38-47.

Pollak, S. D., Cicchetti, D., Hornung, K., & Reed, A. (2000). Recognizing emotion in faces: Developmental effects of child abuse and neglect. *Developmental Psychology, 36*(5), 679-688.

Ro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Rokach, A., & Chan, S. (2021). The many faces of child emotional maltreatment. *Journal of Psychiatry Research Reviews & Reports, 3*(3), 1-7. *DOI: doi.org/10.47363/JPSRR/2021*

Rose, D. T., & Abramson, L. Y. (1992). Developmental predictors of depressive cognitive style: Research and theory. In D. Cicchetti & S. Toth (Eds.), *Rochester Symposium of Developmental Psychopatholog (*Vol. IV, pp. 323-349). Rochester, NY: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Ross, N., Kaminski, P. L., & Herrington, R. (2019). From childhood emotional maltreatment to depressive symptoms in adulthood: The roles of self-compassion and shame. *Child Abuse & Neglect, 92*, 32-42.

Saarni, C. (2000). *The handbook of emotional intelligence: Theory, development, assessment, and application at home, school, and in the workplace*. San Francisco: Jossey-Bass.

Salovey, P., Mayer, J. D., Goldman, S. L., Turvey, C., & Palfai, T. P. (1995). Emotional attention, clarity, and repair: Exploring emotional intelligence using the trait meta-mood scale. In J. W. Pennebaker (Ed.), *Emotion, disclosure, and health*(pp. 125-154).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Saxena, A., Luking K. R., Barch, D. M., & Pagliaccio, D. (2017). Individual differences in hedonic capacity, depressed mood, and affective states predict emotional reactivity. *Motive & Emotion, 41,* 419-429.

Schulz, P., Beblo, T., Ribbert, H., Kater, L., Spannhorst, S., Driessen, M., & Henning-Fast, K. (2017). How is childhood emotional abuse related to major depression in adulthood? The role of personality and emotion acceptance. *Child Abuse & Neglect, 72,* 98-109.

Seligman, M. E. P. (2002). *Authentic happiness: Using the new positive psychology to realize your potentional for lasting fulfillment*. New York: Free Press.

Shafer, A. B. (2006). Meta-analysis of the factor structures of four depression questionnaires: Beck, CES-D, Hamilton, and Zung.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2*(1), 123-146.

Sharpley, C., & Bitsika, V. (2013). Differences in neurological pathways of four "clinical contents" subtypes of depression. *Behavioural Brain Research, 256*, 368-376.

Shipman, K., Edwards, A., Brown, A., Swisher, L., & Jennings, E., (2005). Managing emotion in a maltreating context: A pilot study examining child neglect. *Child Abuse & Neglect, 29,* 1015-1029.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

Spasojević, J., & Alloy, L. B. (2002). Who becomes a depressive ruminator? Developmental antecedents of ruminative response style. *Journal of Cognitive Psychotherapy: An International Quarterly*, *16*, 405-419.

Spinazzola, J., Hodgdon, H., Liang, L.-J., Ford, J. D., Layne, C. M., Pynoos, R., ... Kisiel, C. (2014). Unseen wounds: The contribution of psychological maltreatment to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and risk outcomes.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6,* S18-S28.

Spinhoven, P., Elzinga, B. M., Hovens, J. G. F. M., Roelofs, K., Zitman, F. G., van Oppen, P., & Penninx, B. W. J. H. (2010). The specificity of childhood adversities and negative life events across the life span to anxiety and depressive disorder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26,* 103-112.

Trew, J. L. (2011). Exploring the roles of approach and avoidance in depression: An integrative model. *Clinical Psychology Review, 31,* 1156-1168.

van der Kolk, B. A. (1996). The complexity of adaptation to trauma: Self-regulation, stimulus discrimination, and characterological

development. In B. A. van der Kolk, A. C. McFarlane, & L. Weisaeth(Eds.), *Traumatic stress: The effect of overwhelming experience on mind, body, and society*(pp.182-213). New York: Guildford Press.

Van Marle, H. J., Hermans, E. J., Qin, S., & Fernandez, G. (2009). From specificity to sensitivity: How acute stress affects amygdala processing of biologically salient stimuli. *Biological Psychiatry, 66*(7), 649-655.

van Veen, T., Wardenaar, K. J., Carlier, I. V., Spinhoven, P., Penninx, B. W., & Zitman, F. G., (2013). Are childhood and adult life adversities differentially associated with specific symptom dimensions of depression and anxiety? Testing the tripartite model.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46*(2), 238-245.

Watson, D., & Clark, L. A. (1991). *The Mood and Anxiety Symptom Questionnaire.* Iowa City: University of Iowa.

Watson, D., Gamez, W., & Simms, L. J. (2005). Basic dimensions of temperament and their relation to anxiety and depression: A symptom-based perspectiv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9*(1), 46-66.

Wei, Y. M. (2008).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CERQ) in chinese college students. *Chinese Association for Mental Health, 22*(4), 281-283.

Werner-Seidler, A., Banks, R., Dunn, B. D., & Moulds, M. (2013). An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affect regulation and depression.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51,* 46-56.

Young, J. C., & Widom, C. S. (2014). Long-term effects of child abuse and neglect on emotion processing in adulthood. *Child Abuse & Neglect, 38,* 1369-1381.

Zettle, R. D. (2007). 우울증을 위한 ACT: 우울증 치료에 활용하는 수용전념치료 지침서 (ACT for depression: A clinicians guide to using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in treating depression). (문현미 역, 2013). 서울: 학지사.

원고접수일 : 2022. 02. 09.
게재확정일 : 2022. 03. 23.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Clinical Psychology in Korea: Research and Practice
2022, Vol. 8, No. 4, 559-588

The distinct mediating effect of emotion regul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emotional abuse and emotional neglect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college students*

Sun Young Jeon[1)†] **Eun Jung Kim[2)]**

[1)]Ajou Psychological Counseling Center, Counselor
[2)]Department of Psychology, Ajou University, Professor

Emotional abuse and emotional neglect are subtypes of psychological maltreatment, which are qualitatively different ways of detrimental interactions between caregiver and child, suggesting that they have different effects on later emotional development and depressive symptoms. Emotional abuse consisting of acts of commission was associated with depressed mood, whereas emotional neglect consisting of acts of omission was associated with depressed mood and anhedonic depression.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istinct mediating effect of emotion regul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abuse and emotional neglect and depressive symptoms(depressed mood and anhedonic depression). Three hundred and twenty-three college students completed the measures of childhood maltreatment, childhood trauma, anhedonic depression, depressed mood, negative affective intensity, emotional clarity, and adaptive and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The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showed that negative affective intensity and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sequen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abuse and depressed mood. Also negative affective intensity and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simp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abuse and depressed mood, respectively. Whereas low level of emotional clarity and lack of 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simp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neglect and anhedonic depression, respectively. And low level of emotional clarit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neglect and depressed mood.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distinct emotion regulation might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emotional abuse and emotional neglect and depressed mood and anhedonic depression.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emotional abuse, emotional neglect, emotion regulation, depressed mood, anhedonic depression

---

* This study is a revision of the first author's doctoral thesis(2021)

† Corresponding Author : Sun Young Jeon / Ajou Psychological Counseling Center Counselor / (16502) Ajou Psychological Counseling Center, 5th floor, Campus Plaza, Ajou University, 199, World cup-ro, Yeongtong-gu, Suwon-si, Gyeonggi-do / Fax: 031-219-1729 / E-mail : newsun@hanmail.net